

# 한국교회의 자신학화(self-theologizing)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 선교사의 잠재력 분석

변진석 | GMTC 원장

## <서론>

올 2012년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념하거나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해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올 해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재난으로 기억되고 있는 임진왜란(1592년) 발발 7주갑(周甲-1주갑은 60년)인 420년 되는 해로 국난 극복의 정신을 일깨우기 위한 ‘임진란 추모 행사’가 있는 해이다. 또 영국의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이 대서양에 침몰(1912.4.14.)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한편 선교 역사적으로 볼 때 올 해가 미국 교회의 해외선교 2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하다. 1812년 2월 6일, 매사추세츠 주 살렘(Salem)에 있는 장막교회(Tabernacle Church)에서 다섯 명의 젊은이(한 명의 부인과 또 한 명의 약혼자와 함께)가 미국 최초 해외 선교사로 안수를 받는 일이 있었다. 그 중에는 저 유명한 아도니람 저드슨(Adoniram Judson)과 그 부인 앤(Ann)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어 이백년 동안 북미 교회의 선교는 세계 선교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 그로부터 백년 뒤인 1912년, 한반도에서는 조선 예수교장로회가 설립되었고 총회창립을 기념하여 해외 선교사 파송과 선교지로서 “공맹(孔孟) 문화의 발

상지이자 중국문화의 근거지인 산둥으로” 선교사들을 보낼 것을 결정한 역사적인 해이기도 하다.<sup>1)</sup>

그런데 또 한 가지, 일반에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올 해는 선교 신학적 측면에서 경축해야 할 의미 있는 책인 롤랜드 앨런의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김남식 역, 바울의 선교 방법론, 베다니 출판사)가 출간된 지 백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지난 4월 21일, 필자는 미국 복음주의 선교학회(EMS: Evangelical Missionary Society) 중서부 지회와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TEDS)가 공동 주최한 컨퍼런스 참여 하였는데 거기서 롤랜드 앨런의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가 백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어떤 영향을 주었고 현재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I. 오십년이 지나서야 이해되기 시작한 책

롤랜드 앨런(1868-1947)은 영국 성공회 사제의 아들로 태어나 옥스퍼드에서 수학하였으며 영국 성공회 내 고교회파 전통에 속한 사제가 되었다. 그는 성공회 고교회파 소속 복음전도협회(SPG)의 선교사로 1895년 중국 북부 지방에서 사역하였다. 건강문제로 1902

1) 중국 산둥으로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목사 3인이 실제로 파송된 시점은 1913년이었다.

년 영국으로 귀환한 그는 중국에서의 선교 경험을 반추하며 당시 서구 선교 정책에 대한 심각한 비판을 제기하는 책을 쓰게 된 것이다. 그의 책의 골자는 서구 교회와 선교사가 선교지의 교회들을 주도하는 가운데 선교지 교회들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토착성의 발현을 저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주장하기를 선교사들은 사도바울이 보여준 바와 같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설립이 되게 되면 성령의 인도에 따라 그들이 자발적이고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했다. 앨런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새로 설립된 교회에 복음적 가르침이 계속되도록 하는 단순한 시스템, 즉 두 가지 성례(세례, 성만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주요 사실들에 대한 전승(tradition) 및 구약 성경만을 남겨두고 떠났다(90). 앨런이 당시 중국에서 본바와 같이 서구 선교사들이 선교지 교회를 오랫동안 붙잡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서구 교회의 “복제판” 교회를 그곳에 심기위해 노력하는 것과는 달리 사도바울의 주요 선교지(도시)에서의 짧은 체류는 대조가 될 뿐 아니라 그것이 그의 사역의 성공 요인 중 하나라고 보았다(93). 앨런의 이러한 지적은 백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선교사들이 여전히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통찰력을 담고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그가 각 지역의 교회가 복음의 새로운 측면들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생활의 새로운 형태들을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미 하였다는 것이다. 앨런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기독교는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외래종교로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141, 142).

우리의 선교(missions)가 각기 색다른 특성을 지닌 민족들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그 모두가 놀라우리만큼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중국에서의 선교에 관한 역사를 읽어보면 선교사 몇 사람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줄루(Zululand)지방에서의 선교 역사와 조금도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아무런 새로운 사실이 없다. 이러한 징후들은 우리에게 심각한 근심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한 때 우리는 우리의 설교에 따른 이러한 효과들을 오히려 기대하였고, 새롭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어떠한 현

상들도 [현지] 기독교인의 생각과 삶에서 창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의존적인 획일성의 징표를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징표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지는 교회의 자신학화(self-theologizing)에 대한 개념을 그가 오래전에 이미 간파하였고 그것이 실현되지 못했을 때의 문제점을 개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앨런의 이러한 앞선 생각은 서구문명과 기독교가 하나의 결합체로 여겨졌고, 서구 문화의 도덕적 우월성이 당연시되고 있던 1912년 당시에는 너무나 급진적이고, 비현실적인 생각으로 보였다. 그의 책이 출간되기 이 년 전에 개최된 1910년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대회에서의 분위기가 보여주었듯이 당시는 서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정당한 질서로 간주되고 서구 선교사들의 “승리주의(triumphalism)”가 만연한 시대였다. 그래서인지 앨런 자신은 그의 책이 1960년경에 가서야 제대로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을 하였다고 한다. 그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은 중국 공산화와 서구 선교사들의 철수, 그 뒤에 죽(竹)의 장막 뒤에서도 생존하였을 뿐 아니라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한 오늘날의 중국 교회의 모습에서도 역사적으로 입증되었을 뿐 아니라, 21세기 세계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 속에서도 확증되고 있다. 세계 각 지역의 교회가 자신학화의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앨런의 책은 오십년을 지나면서 이해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백년이 지나서야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 II. 한국 교회와 자신학화

한국 교회는 현대 서구 선교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간주되어 왔다. 특별히 네비우스(J. Nevius)의 삼자(三自) 정책- 자립, 자전, 자치-을 통해 한국 교회는 토착적인 교회(indigenous church) 혹은 자율적인 교회 (autonomous church)로 성장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한국 교회의 이러한 인식에 대해 재평가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동안의 한국 교회의 급성장은 이러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기

에 충분했다. 하지만 최근 이십년간 한국 교회가 침체를 경험하면서<sup>2)</sup> 그에 따른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와중에 한국 교회 안팎으로부터 “한국 교회는 진정으로 토착적인 교회인가?”라는 질문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삼자 원칙”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 교회는 의심할 여지없이 훌륭한 사례이다. 그러나 폴 히버트(P. G. Hiebert)는 현대 선교 운동이 제시했던 세 가지 원칙 외에 진정한 토착교회 혹은 자율적인 교회의 표지로 자신학화(自神學化) 원리를 제시했다.<sup>3)</sup> 이것은 각 지역에서 탄생한 신생 교회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해석할 권리를 갖고 있는가와 관련한 것이다. 각 지역의 교회들은 자신들의 고유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 자기 지역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의 관계,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들에 대해 기독교적 답변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히버트는 이러한 자신학화 원리를 삼자원리에 이은 네 번째 원리(the Fourth Self)라고 불렀다. 자신학화 관점에서 볼 때 한국 교회의 노력은 미진했고, 현실점에 이르러 한국 교회의 대사회적 영향력 및 선교적 역량 축소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에게 기독교가 외래적인 종교로 간주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구한말 기독교가 한국에 도래하여 했을 때만 해도 한국 교회가 서양의 문물과 정신을 전달하는 통로로 간주되는 것이 한국 교회에게는 민심을 얻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유용한 “강점”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한국 사회가 근대화와 서구화를 추구하던 60년대와 70년대 까지도 그러한 사회적 다이내믹이 작동하였을 것이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섰고, 한국 사람들은 자기 문화 정체성의 뿌리를 중시하게 되었으며, 한국 교회의 “외국성” 내지 “서구(미국적) 정취”에 대해 저항감을 느끼고

있다. 슈라이터(R. J. Schreiter)가 자만감에 빠져 지속적인 자신학화 작업을 게을리 했을 때 한 교회가 직면하게 될 결과로 예시한 프랑스 카톨릭 교회의 사례는 우리에게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

아무도 한 문화에 대해 한 번 귀 기울인 것으로 만족하고 그 후 교회의 상황화가 완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이러한 태도는 문화가 불변하고 고정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수 세기 동안 기독교 역사의 일부분이었던 세계 어떤 지역들에서 기독교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유는 그것의 신학적 표현들과 상징적 실행들이 문화적 변화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때 “교회의 맏딸(eldest daughter)”로 칭송되던 프랑스의 기독교 상황이 그러한 예들 중 하나이다. (Scheiter 2003, 40)

### III. 한국 교회의 자신학화와 한국 선교사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최초로 독(獨)노회를 조직하고 7명의 목사를 배출한 조선예수교장로교회는 그 중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이어 1912년 총회 설립과 더불어 3명의 목사를 중국 산둥성에 파송함으로써 세계선교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던 한국 교회는 1970년대 말부터 대대적인 해외선교운동을 일으키며 2012년 현재 세계 177개국에 19,37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강국이 되었다 (Moon 2012, 84). 이러한 선교운동과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의 자신학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sup>4)</sup> 이러한 질문은 한국 교회에도 그렇고 선교사들 자신들에게도 생소한 발상일 것이다. 왜냐하면 양자 모두에게 선교사들이란 먼 나라 선교지의 사역을 위해 파송된 사람들로서 파송 교

2) 한국 개신교회의 성장 하락세는 지난 20년간 지속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까지 교회 성장률은 연간 12.5%에 달했지만, 1989년에 9.0%, 1990년 3.1%, 1991년 0.6%로 하락하더니 1992년에 마이너스 성장(-4.0%)로 돌아서서는 회복을 못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 관습적으로 “천이백만 성도”라 일컬어지던 한국 개신교회 인구는 2005년 8,616,428명으로 조사되었다.

3) “자신학화”는 선교학에 있어 “상황화(contextualization)” 혹은 “토착화(indigenization)” 개념과 관련되어 논의될 수 있는 용어이다. 그러나 다른 두 개의 용어와 달리 “자신학화”라는 용어는 우리의 관심을 신학으로 단박에 이끌어 들이고 신학 및 “신학함(doing theology)”의 성격에 대해 성찰하도록 만드는 강점이 있다. 또한 “자신학화”는 토착교회 원리를 논하는 연장선상에서 제기된 용어이기 때문에 자신학화의 주체로서 선교사가 아닌 지역교회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4) 이 질문은 필자가 2012년 3월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 박사학위(PhD) 취득을 위해 제출했던 논문의 주제이다. 이하 내용은 그의 논문 *Assessing the Potential of Korean Cross-Cultural Missionaries for the Self-Theologizing of the Korean Church*로부터 나온 것이다.

회(모국 교회)에 어떤 영향, 특히 신학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교운동과 선교사들은 모교회/파송교회에도 심대한 신학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 성경과 역사 속에 나타나 있으며, 한국 선교사들 또한 한국 교회의 자신화 노력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A. 타문화 선교 운동과 신학

기독교의 신학과 삶은 그 역사의 초기부터 타문화 선교 운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성경은 그 자체가 기독교의 중심이 유대교 전통으로부터 그리스-로마 세계로 옮겨가는 “전환기”에 나타났다. 그래서 신약 성경 원어는 유대인들의 언어(히브리어, 혹은 아람어)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언어, 혹은 “선교지민”들의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

언어의 형태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복음이해가 타문화 선교 상황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다.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은 고넬료의 회심과 더불어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의 문화적 회심과 나아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신학적 전환(“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할 필요가 없으며,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을 좇을 필요가 없다.”)을 가져왔다. 바울의 경우도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빌 3:5)인 그가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자신의 유대 문화를 상대화시키고, 복음의 보편성에 대한 담대한 주장을 하는데 이른 것을 볼 수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롬 10:12, 13)

히버트에 따르면 선교사들은 그들의 과업의 본질상 신학적인 숙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의 첫 번째 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독교 첫 번째 선교사였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오게 된 것이다(데이빗 보쉬). 이것은 선교사들이 신학적 성

찰보다는 “행동과” 들이라는 일반적 평판과는 매우 색다른 관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복음이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넘을 때마다 부딪쳐 생겨나는 신학적, 목회적 난제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루다보면 신학적 작업이 활성화될 수 밖에 없고, 이런 점에서 타문화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사들은 아주 훌륭한 신학자들이 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사무엘 에스코바르 (Samuel Escobar)는 선교사들이 선교지민들을 섬기고 그들에게서 배울 때 그들을 파송한 자국 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해줄 통찰력과 안목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에스코바르 2004, 198).

### B. 한국 선교사들과 타문화 경험

타문화 경험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학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필자는 한국 선교사들이 타문화 경험을 통해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되었고, 특별히 신학적인 면에서 한국 교회의 자신화 노력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까를 알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질적, 양적 연구 방법론 양자 모두를 채택했고, 각각 인터뷰(33명)와 설문지(450명)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모았다.<sup>5)</sup> 그리고 데이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1. 질적 연구 -인터뷰 분석- 결과

한국 선교사들은 단일 문화권의 배경을 가졌고, 한국 교회만을 주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지만 타문화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 a) 문화적 다양성 수용

처음 선교지에 갔을 때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경직된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문화충격의 과정을 통해 서서히 터득하게 되면서 유연성을 확대하게 된다. 단일 문화권에서 비슷한 사고와 행동양식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기에 한국 선교사

5) 인터뷰는 18명의 개인 인터뷰와 두 개(남/녀) 그룹 인터뷰(15명)로 이루어졌으며 참여자 모두 한국 선교 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선교사, 선교 훈련가 및 행정가, 그리고 목회자들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에는 목사 223명과 선교사 227명이 참여하였다.



## 권두논단

들은 매우 자문화 중심적(ethnocentric)이고 다른 것을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쉽다. 그러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접촉하는 가운데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표현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이해력을 갖게 된다. 중요한 것은 선교사들은 문화충격 뿐 아니라 “신학적 충격(theological shock)”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고국의 파송교회와 교단에서 전수받았던 신학을 넘어서는 다양한 신학적 전통과의 만남 및 새로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달하려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대하지 않았던 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b) 문화 비교 안목 획득

한국 선교사들의 타문화 경험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뿐 아니라 자기 문화, 즉 한국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높여주었다. 히버트는 다른 문화권에서 사역하게 될 때 선교사들은 자신의 문화와 선교지 문화 양쪽 모두로부터 분리된 “초문화적(meta-cultural)” 틀을 발전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한국 선교사들은 이제 한국 문화를 볼 때 “외부자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데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 있는 유교적 가치(권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 형식주의 등)에 대한 예민한 비판적인 눈과 더불어 한국적인 것의 강점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c) 복음과 문화의 구분 능력 배양

복음과 문화를 구분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의 초기부터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과제였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자신들의 유대 문화로부터 분리시키는데 혼란과 갈등(행 15)을 겪었듯이 한국 선교사들 역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무엇이 복음의 핵심이고 무엇이 문화적인 것인가를 구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특별히 강력한 교단 신학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 교회 출신으로 선교사들은 한국에 있는 동안 다른 신학 전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선교지에 도착한다. 많은 경우 선교사 자신들의 지역교회와 교단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신학적 세계”였다. 한국

선교사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형태의 기독교를 선교지에 이식하려는 모습을 주변의 다른 [서양] 선교사들이 관찰하여 지적하는 글을 종종 읽게 되는데, (서양 선교사들이 그랬던 것) 그만큼 한국 선교사들에게는 자신들이 선포하려는 복음과 한국 교회의 특정한 문화를 분리시키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문화 속에 노출되면서 한국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한국에 살았을 때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여겨졌던 요소들이 다른 문화적 상황 속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되고, 핵심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을 점점 더 구분하게 된다.

## 2. 양적 연구 -설문지 분석- 결과

설문지를 통하여서는 타문화 경험(Cross-Cultural Experience) 및 타문화 교육(Cross-Cultural Education)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10개의 문항을 비롯해서, 사고의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 측정 문항(12개), 복음과 문화를 구분하는 능력 측정 문항(11개), 한국 교회의 상황화 신학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능력 측정 문항(16개)과 그 밖에 참여자의 신분(목사/선교사), 성별, 나이, 교단 배경, 신학 공부 및 사역 연한 등에 대한 총 74개의 문항을 분석하였다. 앞서 실행하였던 질적 연구는 이러한 문항들을 구성하고 또 분석하는 데 중요자료로 활용되었다. 필자는 한국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의 타문화 경험의 양이 많을수록 타문화 경험이 없거나 적은 동료들보다 사고의 유연성, 복음과 문화를 구분하는 능력 및 한국 교회의 상황화 신학 필요성 인식 능력이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방식을 취했다. 가설 검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test), t검정(t-test) 및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450명 참여자들을 집단으로 분류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한국 교회의 장로교 양대 교단인 통합과 합동 측 소속 남자 목사 171명(통합 112명/합동 59명)과 선교사 107명(통합 55명/합동 52명) 도합 278명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a) 타문화 경험은 사고의 유연성을 높이는데 있어 목사/선교사 양쪽 그룹 모두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집단적으로 타문화 경험이 더 많은 선교사 그룹과 상대적으로 타문화 경험이 더 적은 목사 그룹을 비교했을 때에도 사고의 유연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사고의 유연성은 타문화 교육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b) 타문화 경험은 복음과 문화를 구분하는 능력을 높이는데 목사/선교사 그룹 양쪽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별히 타문화 경험의 효과는 선교사 그룹보다는 목사 그룹에 크게 나타났다. 즉 타문화 경험이 많은 목사일수록 타문화 경험이 적거나 없는 동료들보다 복음과 문화를 구분하는 능력이 더 높다는 것이다. 한편, 선교사들끼리 비교했을 때 타문화 경험의 효과는 목회자 그룹 내에서처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선교사들이 대체로 타문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일정한 양의 타문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목회자 그룹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목사와 선교사들을 그룹으로 비교했을 때는 선교사 그룹이 복음과 문화를 구분하는 능력이 더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c) 한국 교회의 상황화 신학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능력은 타문화 경험이나 타문화 교육 보다는 자신이 자라난 교단 신학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보수적 교단(합동)의 영향을 받은 목사들은 상황화 신학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 통합 목사 그룹에 비해 크게 뒤떨어졌다. 그러나 선교사 그룹에 있어서는 합동측 선교사들의 능력이 통합측 선교사의 능력과 별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이는 타문화 경험으로 인해 교단신학의 제약을 극복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위와 같이 발견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통찰력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

1) 타문화 경험은 복음을 문화로부터 구분하는 능력을 높여 주는 것으로 나타남으로 한국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의 자신학화에 기여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 밝혀졌다. 왜냐하면 교회가 자신학

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복음과 인간 문화의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신학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복음과 문화를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분석결과가 나온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이는 한국 신학교육의 내용(content)과 상황(context)이 유교적 가치의 영향을 깊게 받고 있는 한국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사회에 있어 학교는 사회적 가치들을 전수하는 주요한 기관인데 한국 안에서는 신학교들도 수직적 구조와 권위적 지도력에 충성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유교의 중요한 가치들을 강조하고 주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적 관점에서 한국 교회의 신학 교육을 갱신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한편 한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한국(교회)문화와 구분하는 높은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통해 한국 교회가 성경적 세계관과 배치되는 “전통적 영성”으로 부터 “성경적 영성”으로 이끌리도록 변화를 일으키는데 선교사들이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연구결과는 나타내고 있다.

2) 한국 교회의 상황화 신학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능력은 보수적인 교단(합동)에 소속한 목사들이 상대 교단(통합) 소속 목사들과 비교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졌지만, 선교사 그룹에 있어서는 합동과 통합 선교사들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는 합동측 선교사들이 타문화 경험과 타문화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교단 신학으로부터 받은 상황화 신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별히 이번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 중 GMTC 졸업생들이 합동측 선교사들의 절반 가량(n=25, 48.1%)을 차지한 반면, 통합측은 소수(n=6, 10.9%)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합동측 선교사들이 상황화 신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GMTC 선교사 훈련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필자는 해석하고 있다.

3) 사고의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선교사 훈련을 포함한 타문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

## 권두논단

다. 타문화에서의 경험자체보다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사고를 유연하게 하는 능력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터뷰 데이터 분석과 필자의 관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떤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에서 가졌던 단일 문화적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경험한 것이란 그의 주변에서 무엇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다.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해석(construing)하고 재해석(reconstruing)하는 지속적인 작업이 있게 될 때에 그것이 한 사람의 경험을 풍요롭게 한다”(George Kelly)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적 개입이 사고의 발전에 있어 경험보다 더 중요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말이다.

위의 발견을 종합해 볼 때 한국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의 자신학화를 촉진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역량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문화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게 된다.

## <결론>

한국교회는 21세기의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효과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자신학화(self-theologizing)의 과제를 심도있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또한 전 세계 교회(Global Church)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더 풍요롭고 다양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데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자신학화 작업을 통하여 한국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행동하기를 원하는가를 보여주고 순종하게 될 때 일차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믿고자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뿐 아니라, 세계 교회는 각자의 위치에서 또 그런 작업을 해나가는데 있어 도전과 격려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엡 4:13) 과정이기도 하다.

한편, 한국 교회는 자신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이 먼 선교지를 위해서 뿐 아니라 한국 교회 자체를 위한 귀중한 자원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난 30년 동안

지속된 한국교회의 타문화 선교 운동은 세계선교에 기여하는 것 외에도 오늘날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 교회의 갱신과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선교사)을 훈련하고 예비시키는 과정은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 <참고 문헌>

- Allen, Roland. [1912] 1962.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 Grand Rapids, MI:Eerdmans. (한국판. *바울의 선교 방법론*. 도서출판 베다니).
- Hieber, Paul G. 2000. Spiritual warfare and worldview. In *Global Missiological for 21st Century*. ed. William Taylor, 163-177. Grand Rapids, MI:Baker Academic. (한국판. *21세기 글로벌 선교학*. CLC)
- Jinsuk Byun. 2012. *Assessing the Potential of Korean Cross-Cultural Missionaries for the Self-Theologizing of the Korean Church*. PhD diss.,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 Long, Charles H. and Anne Rowthorn. 1994. Roland Allen (1868-1947):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 *Mission Legacies*. ed. Gerald Anderson, 383-390. Maryknoll:Orbis Books.
- Moon, Steve Sang-Cheol. 2012. Missions from Korea 2012: Slowdown and Maturation.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36, no.2.:84-85.
- Robert, Dana L. 1998. *American Women in Mission*. Macon, Georgia: Mercer University Press.
- Schreiter, Robert. 2003. *Constructing local theologies*. Maryknoll: Orbis Books.
- 사무엘 에스코바르. 2004. *벽을 넘어 열방으로*. 권영석 역. IVP.
- 폴 히버트. 1996. *선교와 문화 인류학*. 김동화 외 3인 역. 조이선교회 출판부.